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미디어 콘텐츠학과	이름	이*민
파견국가	체코	파견도시	Zlin
파견대학	Tomas Bata University	파견기간	2017년 2학기 ~ 2018년 1학기
귀국여부	2018 7월 1일 입국 예정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체코의 신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선호하신다면 좋지만 도시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신창과 같이 중간도시에서 즐린 오는 버스나 열차가 별로 없습니다. 프라하에 갈 경우 버스와 열차를 이용하여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학교가 현재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있어 어떤 과대는 새 건물이지만 경영, 멀티미디어과는 건물이 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캠퍼스가 다 모여 있지만 체코 같은 경우는 한 도시 안에 대학교 건물이 도시 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Erasmus라고 유럽인들의 교환학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같이 영어로 수업을 듣게 되며 전반적으로 체코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십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교수님은 Assistant에게 강의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사람들에게 수업을 받는데 발음과 억양이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 처리는 한국에 비해 느리고 오피스 시간도 오후 3시 정도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2018-2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경영학과(복수전공) 중심으로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경영학과여도 다른 학과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은 절대평가 입니다. 주로 기말고사 한 번과 두 세번의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습니다. 각 과목마다 강의, 세미나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간표는 오리엔테이션 주 기준으로 3주간 정정할 수 있습니다. Bata라는 신발 브랜드를 만든 학교로서 디자인 쪽의 수업이 많습니다. 시간표의 여유가 없어 'Shoe Design'을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수강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발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는 수업입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Buddy System이라고 체코 전지역에서 Erasmus (유럽인 교환학생)과 일반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체코학생들과 멘토&멘티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오리엔테이션 week에서 나온 패키지는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Country Presentation이라고 격주로 나라별로 PPT랑 음식으로 대결하는 프로그램인데 매주 가면 여러 나라의 음식과 정보를 알 수 있어 유익합니다. Buddy System에서 운영하는 여행이 몇 가지 있지만 한국인이 선호하는 여행과는 다릅니다. 외국인들 체력을 따라갈 수 있다면 추천입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한국과 비슷합니다. 여름은 한국보다 습하지 않아 불쾌지수가 적지만 겨울에는 건조한 만큼 더 춥게 느껴집니다. 숙소에 라디에이터가 있어 전기장판 없어도 따뜻하게 겨울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해가 3시 반부터 지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처음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적응하다 보면 안전합니다. 현지인들만 있다 보니 소매치기, 인종차별로 문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프라하보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치안 좋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p> <p>한국에 비해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2인1실이지만 4명에서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합니다. 통금도 없고 한달에 한 번씩 청결 정도만 검사하는 수준입니다. 기숙사는 순천향 대학교 학생사와 낯은 정도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층침대가 아닌 일반 침대이고 책상과 옷장 하나 스탠드 하나 있습니다. 유럽은 욕실화 개념이 없어 한국에서 욕실화 하나 사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숙사 (U12)를 이용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많은 교환학생들이 대부분 살고 있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중 시설이 가장 좋습니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i></p> <p><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학교 식당은 싼 게 장점이지만 엄청 짭니다. 오후 4시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2개의 큰 체인점 레스토랑이 있어 가끔 이용했습니다. 기본 1만원대에서 1만 5천원대지만 질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Burger' 레스토랑의 버거를 꼭 추천합니다! 팁 문화는 프라하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즐린에서 한 번도 팁을 준 적도 요구 한 적도 없습니다. 주로 프라하 K-shop에서 음식재료를 사와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음식재료가 저렴하여 요리를 해먹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최근에 Brno (옆 도시)에도 K-shop이 생겼다고 합니다. 밥술 작은 거는 즐린 'Euronet'이라는 곳에서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우리나라처럼 캠퍼스 개념이 아닌 즐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대학교 건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워낙 도시가 작고 접근성이 불편해 트램 탄 적이 거의 없습니다. CD 체크 철도청과 Regiojet 두 개의 교통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Regiojet 카드를 만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이폰인 경우 어플을 다운받아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ISIC 카드가 있으면 할인, 각종 프로모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간 이동시에는 철도청을 이용하는 것이 덜 오래 걸립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항공료, 여행비 제외하면 월 60만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100만원 초반대	체코항공 이용 (대한항공 코드쉐어)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없음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1년에 약 20만원? (기억 안 남)
숙소	U12 이용	월 15만원
식비	기숙사에서 주로 요리	월 30만원 (기숙사에서 요리 위주)
교통비		통학 할 때는 필요 없음
책값		없음
기타1	여행경비 (서유럽, 동유럽)	약 700만원
기타2	빨래	한 번 이용 시 2,500원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비자를 한국에서 받을 지 체코가 아닌 나라에서 받아야 할 지 결정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받을 경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가 있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받았습니다. 한국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파견 된 9명 학생 중 1명만 한국에서 받아왔습니다. 비엔나가 철도청 기차를 이용하면 3시간 정도 걸려 생각보다 가기 편합니다. 하지만 체코에 입국하기전 혹은 하자마자 비엔나에 있는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쉥겐조약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맘 고생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여유롭다면 한국에서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체크카드 또한 궁금해 하실 텐데 체크카드는 하나 비바카드가 가장 좋습니다. 즐린 근처 어느 은행 ATM에서 뽑아도 수수료가 1프로 밖에 안 나옵니다. 은행에 붙어있는 ATM이 따로 추가되는 수수료가 없어 좋습니다.

또한 기초화장품은 한국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초화장품과 팩은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타지 생활에 대해 걱정이 많았지만 글로벌 빌리지를 통해 만난 체코 친구들 덕분에 좀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도시를 좋아한 지라 '즐린'이라는 도시가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1시간 정도 거리에 '올로모우츠'와 '브루노'라는 도시를 가서 기분전환을 한 적도 있었지만 즐린 자체 도시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영어가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원한다면 유럽이 아닌 미국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유럽인들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 모두 서로의 발음이 틀린 게 아니라 억양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기죽지 않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체코에 살면서 체코는 물론 북유럽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더 세상보는 눈과 다름을 인정하는 마인드를 배운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Buddy System에서 운영하는 'Country Presentation'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나라에 대한 PPT와 음식을 준비해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사진의 국가는 그리스 친구들입니다.</p>	<p>옆과 같이 각 준비한 PPT가 끝나면 각 나라의 음식을 맛 볼 수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 승자가 정해집니다. Buddy System에서 돈을 지원해주지만 한국은 항상 부족해 각자 사비로 1-2만원씩 걷어서 준비했습니다.</p>
	
<p>즐린의 메인 스퀘어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마켓이 열리거나 행사 부스가 열리기도 하고 콘서트도 열립니다. 건물 안에 영화관, 더글라스(세포라 같은 곳)가 있고 KFC 카페, 맥도날드, H&M</p>	<p>파티가 클럽에서 정말 많이 열립니다. 버디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파티도 많고 개인이 운영하는 파티도 있으니 꼭 가보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재미는 한국보다 없습니다.</p>

<p>flying tiger 등이 있습니다.</p>	
	
<p>학교에서 메인 스퀘어에 가는 길입니다. 옆에는 오른쪽의 사진과 같은 큰 공원이 있습니다. 현 사진의 가는 길에 앞서 얘기했던 'Burger' 레스토랑이 있으니 꼭 먹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p>즐린의 메인 공원입니다. 봄에는 여러 가족들 연인들이 피크닉을 하고 커피를 파는 자전거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p> <p>하지만 겨울에는 황량합니다. 페스티벌이 있으면 여기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p>